지역 미술가들 "위기가 기회다"

경기 침체·미술품 양도세 과세로 위축

국내외 아트페어 참여…활로 적극 모색

최근 경기 침체와 미술품 양도세 과세 방침으로 미술계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작가들이 국내외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미술시장 불황이 계속되면서 작업실에서 작품 창작만 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작가 스스로 자신을 알리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아트페어는 해외 갤러리 관계자들과 미술 애호가들이 작품을 구입하는 미술시장으로 작가들에게는 작품도 팔고 해외 미술계에 눈도장까지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29일 개막하는 '2008 대구아트페어'(29일~11월2일)에 지역 작가 고근호, 박수만, 최재영, 박형규, 안유자, 오혜경, 박태후, 주대희, 김화영씨 등이 참여한다.

대구아트페어는 국내외 50개 화랑을 통해 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2천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올 하반기 최대의 미술 장터. 특히 올해는 국내외에서 약 200여 명의 컬렉터가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작가들은 컬렉터들의 눈을 사로잡기 위해 대부분 신작을 출품할 계획이다. 고근호씨는 혜원 신윤복과 단원 김홍도의 그림 속에 컴퓨터 등 현대를 대표하는 물건을 집어넣어 색다른 묘미를 선사하는 작품을 내놓는다. 또 박수만씨는 변형된 인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을, 최재영씨는 머리 큰 아이 시리즈를 각각 선보인다.

또 다음달 22~24일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 컨템퍼러리 아트페어 2008'에도 유수종, 이이남, 최재영, 고근호, 주대희, 박형규씨가 참가한다. 특히 이씨는 내년 1월20~5월20일까지 4개월 동안 미국 예일대학교 미술관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전시를 갖는다. 이씨는 예일대학교의 초청으로 내년 2월17일에는 '뉴-미디어아트와 이이남 미술의 발아'라는 주제로 강의도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막을 내린 '제8회 아트 싱가포르 2008'에도 고근호, 박수만, 손봉채, 최재영씨 등이 참여해 세계 무대에 자신의 작품을 알렸다. 아트 싱가포르는 16개국 약 110개 아트 갤러리들이 참여해 싱가포르 달러로 4천2백만 달러 어치의 작품을 선보인 국제 행사였다.

이에 앞서 9월에 열린 제7회 한국국제아트페어(9월19일~23일)에서도 이이남씨가 10점, 최재영씨가 8점의 작품을 판매하는 등 지역작가들이 인기몰이를 했다. 최재영씨는 독일, 스위스 등 3개국의 갤러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성과도 거뒀다.

나인갤러리 양승찬 관장은 "경기침체가 미술시장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작가들이 적극적으로 아트페어와 해외 전시를 공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근 지역작가들이 미술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아트페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열렸던 제7회 한국국제아트페어 모습.

남도 음악 명인 한일섭을 아시나요

화순 출신 아쟁 산조 명인 … 국립국악원 '재조명' 공연

11월 5~6일 국악원 예악당

남도 음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화순 출신 한일섭(1929~1973·사진) 선생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연주회가 마련된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은 오는 11월 5~6일 오후 7시30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풍류, 과거를 넘어 현재를 수놓다-남도 음악의 거장 한일섭 명인을 재조명하다'를 공연한다.

매부인 성원목(성창순 명인의 부친)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며 국악에 입문한 한씨는 이후 다양한 남도 음악을 섭렵했고 이후 여성국극단 악사장으로 활동하며 창극의 작·편곡자로 이름을 날렸다.

1962년에는 처음으로 아쟁산조라는 국악 형식을 만들어냈으며 후에는 태평소 시나위를 만들어 풍물, 무속, 불교음악에서 사용되던 태평소라는 악기를 무대에서도 연주할수 있도록 했다.

한 씨는 특히 서용석·박종선·김청만·이생강씨 등 현재 한국 국악계를 이끌고 있는 명인들의 스승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일섭 아쟁 산조'에 의한 산조합주와 '한일섭 태평소 시나위에 의한 태평소와 시나위'가 공연되며 특히 현재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들 한세현씨가 함께 무대에 올라 의미를 더한다.

티켓 가격 1만원. 문의 02-580-33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학을 즐겁게"

인터파크 인문학 도서 '희망의 캠페인'

인문학 도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출판사와 인터넷 서점이 함께 나섰다.

인터넷서점인 인터파크INT 도서부문은 인문학 도서시장 활성화를 위한 '희망의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인문사회과학출판인모임과 함께 추진하는 희망의 캠페인은 출판인모임 소속의 출판 전문가 5명이 매월 첫째 주마다 지난 3개월 동안 출간된 인문사회과학분야의 도서들 가운데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인 인문학 책 12-15종을 '이달의 인문학 추천도서'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에 인터파크도서는 3개월 단위로 인문/역사/인물, 사회과학/자연과학, 종교/예술과 과학/대중문화 등 3개 분야별로 독자 리뷰단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책과 도서 구입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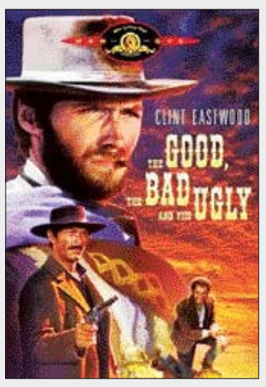
선정된 리뷰단은 이달의 인문학 추천도서 중 1권 등 매달 3권 이상의 인문학 도서를 읽고 리뷰를 작성하며 각종 인문학 캠페인 행사의 패널로 참가하게 된다.

캠페인 첫 달인 10월에는 인문 분야에서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박천홍 지음. 현실문화연구 펴냄), '하늘이 감춘 땅'(조현. 한겨레신문사), '야쿠자 음지의 권력자들'(미야자키 미나부.이다미디어)가 추천도서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광주극장 '서부영화 컬렉션'

'놈놈놈' 깐느영화제 버전도 상영



'석양의 무법자'

'석양의 무법자'의 명감독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세르지오 레오네 컬렉션'과 '웨스턴 무비 컬렉션'이 11월 2일까지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이번에 상영되는 작품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리반 클리프가 주연을 맡은 서부 영화의 고전 '석양의 무법자'를 비롯해 헨리폰다와 찰슨 브론슨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옛날 옛적 서부에서', 제임스 코번 주연의 '석양의 갱들'이다. 특히 로버트 드 니로의 열연과 아름다운 음악이 인상적인 레오네의 유작 '원스 어펀 어 타임 인 아메리카'도 상영된다.

'웨스턴 무비 컬렉션'에서는 러셀 크로가 열연한 새로운 개념의 서부 영화 '3 : 10 투 유마', 1913년 혁명이 한창인 멕시코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샘 패킨파 감독의 '와일드 번치'와 '대평원'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700만명이 넘는 관객들을 동원했던 김지운 감독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경우 극의 마지막 결론이 다른 깐느영화제 상영버전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디지털 음원 활성화 토론회

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디지털 음원 및 음향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30일 오후 3시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 206호에서 '아시아음악 콘텐츠를 활용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음악 산업의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이상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만재(문화체육관광부 CT R&D 기획단장)씨가 'CT 분야 R&D 사례'에 대한 기조 발제한다. 이어 음악, 디지털 음원, 음악산업 활성화, 음악 페스티벌 등 4개 섹션에서 '아시아 디지털 음원의 산업화'(최상학 중앙대 국악과 교수),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성공 사례를 통해 본 아시아문화중시도시 음악페스티벌의 성공전략'(계맹국·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사무국장)을 주제로 토론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일곡도서관 '동아리 한마당 축제'

21개 동아리 참가

광주일곡도서관(관장 안미영)이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도서관 1층 로비에서 '함께해요! 제7회 동아리 한마당 축제'를 연다.

이번 축제는 일곡도서관에서 활동 중인 21개 동아리가 1년 동안 활동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축제에서는 시립국극단 단원으로 활동 중인 이지선씨의 판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바이올린반의 '하이든의 세레나데', 클래식 기타반의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2악장' '영화 시네마 천국 러브테마' 등의 연주가 이어진다. 또 팝송반은 아바의 히트곡인 'I have a dream' 'Dancing Queen'을 부르며 영어클럽의 연극 'Rainbow Fish', 일곡시회의 시낭송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됐다. 문의 062-575-3457.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